

투데이

하루 25만명 예측했던 광주지하철

실제이용객 3만명 불과

추정 교통량의 12% 그쳐...전국 14개 노선중 최저 KDI, 영업이익률도 최하 "새노선 건설 신중해야"

광주 지하철 1호선의 실제 이용객 수가 지하철 건설 당시 예측했던 이용객 수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게 추정됐으며, 앞으로 신규 노선 건설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갑수 연구위원은 지난 30일 발표한 '도시철도 교통량 수요 과다추정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광주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등 7개 지역 14개 노선의 교통량 추정 오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광주 지하철 1호선의 개통연도 실제 이용

객 수는 하루 3만573명으로, 개통연도 예측 이용객 수 25만7100명의 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조사대상 7개 지역 지하철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경기지역 지하철은 예측 대비 실제 이용객 수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지역 지하철도 평균 34%를 기록했다. 대전은 22%, 인천은 16%, 대구 1호선은 12%였다. 이처럼 교통량이 과다하게 추정됨으로써 광주지하철의 지난 2010년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589.07%를 기록했으며, 부채규모도 2010년 기준 8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재검토기간의 차적으로 활용하려한다"며 "사업 시행부처도 예산과 조직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에 대해 낙관적이며, 이 때문에 교통량을 과다추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 입력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통량 추정을 위한 분석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도시철도 신규 노선을 건설하려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시행을 억제하거나,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영락공원 전국에 개방

봉안시설 5만기 전국 최대규모 안내 도우미·온라인 접수 도입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이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민 이외에 타 지역 주민들도 자연장과 봉안시설(납골당)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5만기에 이르는 봉안시설을 갖추고, 장사시설 안내도우미와 화장예약 온라인 접수 등 서비스 개선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다 이용요금을 차별화해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0일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7월 1일부터

타 지역주민이라도 전국에 산적해 있는 개인 및 가족묘를 이장할 수 있으며 화장장, 자연장, 추모관(부부단) 봉안 등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광주영락공원이 지역제한을 해제한 것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사시설 안내도우미를 도입해 화장예약 온라인 접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발급 불편 해소, 고품격 추모관 및 첨단 제례시스템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타 지역주민들도 언제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매장 중심의 제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화장장 등 장사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타 지역 이용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영락공원은 올해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봉안이 가능하도록 운영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미 묘지로 조성됐거나 타 시설에 봉안된 유골도 이장이 가능하게 했다.

대신 사용료를 광주시민은 현행과 같이 34만원, 전남 주민은 64만원, 타지역 주민은 94만원으로 차별화했다. 광주영락공원 김남기 소장은 "광주영락공원이 전국 최대 규모의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더 향상시켜 장사시설의 표준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민 참여없는 영광원전 안전점검 인정 못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 30일 영광 한전문화회관에서 개최하려 했던 '원전 안전점검 결과 주민 설명회' 행사장에서 일부 주민들이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은 안전점검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암 F1경주장 준공 10월말로 또 연기

부지 양도·양수 지연 현실화

영암의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 경주장 준공이 또다시 미뤄졌다. 경주장 부지에 대한 양도·양수 지연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지난해 이어 자칫 올해 대화까지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은 최근 경주장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가 제출한 F1 경주장을 비롯한 주변 시설의 준공 기한을 오는 2011년 10월 31

일까지 5개월 연장하는 '영암 군계획 시설(F1 경주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안을 인가, 고시했다. 지난 5월 31일까지 경주장 건설사업을 준공기로 했던 계획을 5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벌써 세번째다. KAVO는 지난해 9월 경주장 준공 시기를 11월 말로 한 차례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올 5월 31일까지로 연기하는 변경안을 냈다가 이번에 재차 준공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KAVO측은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협의가 지연되는데 따라 준공 기

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주장 준공이 늦어지면 체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사후 활용 방안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지금껏 개최해온 '공과 대화'를 앞으로도 계속 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준공 시기를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 어 울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시기(10월 14일~16일)를 고려하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미준공 시설로 대화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 브리핑

오늘부터 5~19인 사업장도 주 40시간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로써 34만여개 사업장, 287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키로

지식경제부는 7월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경부는 LNG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두 차례 요금이 인상된 점과 최근 물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치매환자 5만6천명에 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의 50%(4인가족 기준 207만7000원)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대상자는 5만6000명, 지급액은 환자당 최대 월 3만원이다.

유가보조금 지급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운송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의 아래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와

연화물운송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국 16개 지역별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16개 지역별로 대·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동반성장 협의체가 구성된다. 아울러 각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동반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별 동반성장 담당관을 지정하게 된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부지사들은 지난 30일 '중앙-지역 동반성장 추진 협의회'를 발족시켜 이 같은 계획을 협의했다. 이 협의회는 각 지역의 동반성장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및 소통 채널로 운영된다. 이날 발족식에서 각 지자체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특히 소모성 자재는 가급적 중소기업체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자체의 동반성장 노력을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 차관은 정유사 석유제품 할인공로를 앞두고 지자체별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유소의 판매거부·물량조정 등을 적극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경매투자
•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I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주)일화 기획생산 호남지사모집
당사는 (주)일화의 기획생산 공식지정업체로
향양, 향당노로 세계특허 10개획득한
신물질 발효인삼·홍삼을 취급할
호남지역 파트너를 구합니다
전원내츄럴 F&D
www.fnd.or.kr
고객센터 0505-302-1111
주식회사 일화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목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대출금리 | 년 6%정도 (천만원월 이자 5만원선)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과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용)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대출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기간 - 1년~10년 (특정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시금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A/세-80%+a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